

우산국이 512년 신라의 이사부에 의해 한반도의 영토로 편입된 이래 지금까지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속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불법 침입하여 자원을 수탈해 왔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마다 이 두 섬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조선 초기 일본으로부터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지켜낸 안용복, 한국 전쟁기의 혼란에서도 독도를 지키는 독도영웅수비대, 이들은 자신의 삶을 지키고자 했던 누군가의 무모이자 자식, 그리고 이웃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독도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왔던 영토였습니다.

오늘날 일본은 독도에 대한 불법적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며 국제사회에 잘못된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과거 자행한 역사적 만행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한일 간 독도 문제가 야기되는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도에 대한 역사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전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독도에 대한 역사인식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전시해 소개되는 국내·외 조사 연구된 다양한 자료를 통해 독도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해상왕국 우산국(于山國)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적 기원은 우산국에서 찾을 수 있다. 지증왕 13년(512년) 이사부에 의하여 신라의 영토로 편입된 우산국은 하나의 독자적인 소국으로서 그 지위를 이어갔다. 고려 건국 이후에도 우산국은 고려의 새로운 관직계를 형성하여 그 지위를 이어갔다. 고려 건국 이후에도 우산국은 고려의 새로운 관직계를 형성하여 그 지위를 이어갔다. 고려 건국 이후에도 우산국은 고려의 새로운 관직계를 형성하여 그 지위를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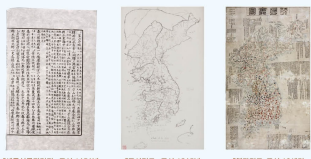


‘고려사기, 고려 1145년’ ‘고려사, 조선 1451년’

조선이 기록한 울릉도와 독도

조선의 건국 후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다. 이에 조선은 두 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종 기록을 작성하였으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리지(地理志)와 지도(地圖)이다. 지리지와 지도는 통치에 필요한 각 고을의 핵심 정보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조선은 이들의 체계적 작성을 통해 효율적으로 전국토를 관리하였다.

국가통치의 기본 자료가인 지리지와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명확히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이 통치하는, 조선의 영토였음을 증명한다.



‘새물길목지리지, 조선 1454년’ ‘조선연도, 조선 1845년’ ‘해동지도, 조선 19세기’

안용복의 도일(渡日)과 울릉도 쟁계

조선은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도사지역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을 본토로 송환시키는 배관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울릉도와 독도는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 되어 이를 이용한 일본인들이 이 두 섬을 불법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고, 이는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명확히 규정짓기 위한 외교 분쟁인 울릉도 쟁계로 이어졌다. 안용복은 1693년과 1696년, 두 차례에 걸친 도일 활동으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일본 막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안용복은 독도를 둘러싼 쟁점이 17세기 말 조선의 승리로 종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지금도 독도 영유권에 대한 중요한 국제적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다.



‘숙종실록, 조선 1696년’ ‘독도도해금지침, 일본 1696년’

수토정책의 시행

울릉도와 독도는 어로 및 삼림자원의 보고(寶庫)였기에 울릉도 쟁계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일본 어민들의 불법수탈은 계속되었다. 이에 조선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하고 일본 어민의 불법수탈을 근절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수토사(水頭使)를 파견하여 거주하는 주민을 쇠환(廻換)하고 일본인을 추방하는 한편, 울릉도와 독도의 실태도 함께 조사하는 수토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는 조선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토인식의 강화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울릉도사적, 강헌상 조선 1694년’

일본의 독도인식

대륙의 침략을 준비하던 일본에게 각국의 지리적 정보를 함축한 지도는 필수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일본은 17세기 20세에 이르는 동안 인접국의 다양한 지도를 제작하였다. 그들은 지도를 제작함에 있어 최신의 정보를 담기 위해 현대적 적도법을 도입했으며, 서양에서 제작된 지도를 사용하거나 기존의 지도를 편입하기도 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된 지도의 공통점은 바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기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이 과거부터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대일본본국지도, 일본 1878년’ ‘삼국강일지도, 일본 1785년’ ‘조선국세간연도, 일본 1873년’

울릉도 재개척과 영토 편입

대한제국은 수토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적극적인 울릉도 재개척을 결정하였다. 이에 1883년 16호 54명의 울릉도 이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개척이 시작되었다. 이후 점차 인구 증가하여 1887년에는 12개 마을, 1,134명이 울릉도에 거주하게 되었다. 재개척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의 수탈이 계속되자 정부는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의 반포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 독도 등 일대의 부속도서 모두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하는 관제개정을 단행하였다.

이처럼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강원도의 27번째 정식 지방관청로 편입되었다. 이처럼 '칙령 제41호'는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대내외에 선명히 증명하는 의미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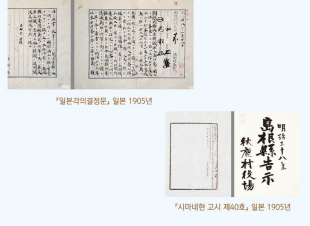


‘고지, 조선 1890년’ ‘칙령 제41호, 대한제국 1900년’

일본의 독도침탈

제국주의의 야욕을 드러내던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 인근의 풍부한 어로 및 삼림 자원을 수탈함과 동시에 러·일전쟁 승리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독도침탈을 계획하였다.

결국 일본의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작성,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불법 편입하였다. 그러나 이 고시는 중앙정부에 아닌 한남 지방정부에 의한 것이며, 관보나 공식제도에 전혀 발표되지 않은 회합 형태의 문서이며 영토변입과 관련한 사실을 대한제국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은 실용성이 없는 불법문서로 불거하였다.



‘일본러러의울양문, 일본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일본 1905년’